

“한인 커뮤니티·상권 큰 성장 이뤄 뿌듯합니다”

내달 11일 임기 마치는 강석희 어바인 시장 감사파티 주류 인사·주민 등 150여명 모여 8년간 노고에 박수

지난 27일 어바인 시청에서는 다음 달 11일부로 임기를 끝내고 시의회를 떠나는 강석희(60) 시장에 대한 감사파티가 열렸다. 강 시장은 2004년 시의원으로서 처음 당선됐고 2008년부터는 2선에 걸쳐 시장을 역임했다. 이날 행사에는 30여 명의 한인 하객들을 포함해 돈 와그너 주 하원의원, 빌 캠펠 OC수퍼바이저 등 주류 인사와 지역 주민들 150여 명이 모여 지난 8년간 강 시장이 보여준 노고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 시장은 “한인사회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둔 점이 가장 뿌듯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 재임 중인 지난 8년간 한인사회가 크게 성장했다.
“한인사회가 이룬 질적, 양적 성장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전무했던 한인마켓이 3개가 들어서면서 한인 상권이 형성됐고 그에 따라 커뮤니티가 크게 성장했다. 각종 지역사회 행사에 한인들이 참여하기 시작했고 주류사회가 한인사회를 인식하게 된 발판이 마련됐다. 모두 나와 최석호 의원이 버티고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된다.”
- 한국에서도 어바인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시장 재임 4년간 어바인 시청을 방문한 한국 지자체 관계자만 수백 명은 된다. 한국의 정치인, 공무원들의 연수 희망지 1순위가 어바인이라고 하더라. 서울 서초구, 노원구와도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 한국에서도 어바인을 많이 안다고 하더라. 한국에서도 어바인의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다.”
- 한인 정치력 신장에도 큰 기여를 했다.

“전국을 다니면서 느낀 것은 많은 한인들이 나로 인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다. 어바인과는 관계 없는 타주의 한인들이지만 자랑스럽다고 말해주는 모습에서 나 자신도 뿌듯함을 느꼈다. 이민 1세로 주요 도시의 시장을 맡으며 한인들의 자긍심을 살렸다고 많은 분들이 말



지난 27일 어바인 시청에서 강석희 시장을 위한 감사파티가 열렸다. 150명의 주민이 참석해 시의원, 시장 등을 거치며 8년간 어바인을 위해 노력해준 그의 노고를 치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 시장이 찾아준 한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작은 사진은 지난 8년간을 돌아보며 소회를 밝히고 있는 강 시장.



씀하신다. 최근 서부, 동부에서 젊은 정치인들이 출마해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한 것 같아 뿌듯하다.”
- 8년 간 봉사했던 시의회를 떠나는데 소감은.

“솔직히 섭섭하다. 무명이었던 내가 2004년 시의원에 당선되면서 부시장도 맡아 커뮤니티를 위해 열심히 봉사했다. 2010년 시장에 재선이 되면서까지 열정을 다했는데 떠나려니 섭섭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내 인생의 황금기인 50대를 이곳에서 보냈다는 사실이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밑거름이 될 거라 생각한다.”
- 의정활동 중 성과를 꼽는다면.

“많은 사람이 내가 시의회에 들어오면서 정중함(civility)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평가한다. 정정보다는 공평하고 커뮤니티가 우선되는 시정활동을 한 게 그런 평가를 받은 것 같다. 또한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안정화시켜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축소하지 않았으며 신규 세금 없이 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게 성과라 생각한다.”
- 소회도 남다를 텐데.

“어바인뿐 아니라 한인사회를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을 다했다. 영어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고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남보다 한 발 더 뛰었다. 한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매일 스스로를 채찍질해야만 했다.”
- 앞으로의 계획은.

“우선 한인 2세들을 위해 한국어로 출간된 내 책을 영어로 번역할 계획이다. 1차 작업은 끝났고 아마 내년 상반기쯤에 완성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당분간은 정치계를 떠나지만 그간의 축적된 경험을 살려서 어떤 모습으로든 한인사회의 힘이 되고 싶다.” 글·사진=신승우 기자